

테마칼럼

남도의 재발견

도시와 삶

건강과 생활

교육을 생각한다

창조도시 광주의 미래



노경수

앞으로 행정기관·학계·경제계·시민이 진지하게 서로 다가가 협력하면서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의 밑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향후 4년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동맹들이 모두 결정됐다. 이들 당선자들은 한결 같이 지역을 과거와는 달리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이제는 이 공약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지켜봐야 할 때다.

광운대 광주시장 당선자는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 살맛나는 사회,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으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필자의 눈에 각인된 단어는 '창조의 중심도시'라는 부분이다. 이를 줄여 '창조도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막연하고 생소한 듯 들리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된 바 있다.

논의의 방향은 크게 도시발전 전략의 차원과 창조를 이끌어 낼 창의적인 인재 발굴 및 육성 차원에 관한 부분으로 분류된다. 이 창조도시의 명확한 정의와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 이를 광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향후 4년간 광주시정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먼저, 창조도시를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발전 전략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다. 세계화 시대에 도시 간 생존경쟁이 격화되고, 제조업 등 2차산업의 성장한계, 탈산업화·탈물질화하면서 세계의 도시들이 산업(제조업)경제에서 창조(문화예술)경제의 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창의성의 기반이 되는 문화와 예술은 존재 그 자체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창조도시의 시대에는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나아가 고용과 부를 창출하게 된다.

선진도시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심재생과 창조산업(문화산업) 클러스터의 결합을 통한 도시경제 활성화, 근대 건축물의 리모델링이나

공공디자인 도입을 통해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관광객 유치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들어 창의적 인재의 유치와 지역의 창조성이 도시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앞서 설명한 연쇄·상승효과 때문이다. 창의성은 개인·조직·기업·도시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초석이며, 인간의 지식·지식·창의성에 기초한 창조산업은 창조도시와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창조도시의 첫째 창조적 인재가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이며, 둘째 창조적인 인재들이 도시 내에서 활동하면서 예술적 영감과 그들이 지닌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 및 거주환경의 다양성이 풍부한 도시, 마지막으로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경제시스템을 갖춘 도시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명저 창조도시(Creative City)의 저자 로널드 알런진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 영국 도시건설업 업체 코메디아 대표는 창조도시의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07년 말에 한국을 방문한바 있는 그는 창조적인 도시는 시민의 창의력을 얼마나 끄집어내느냐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場)과 네트워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차별화된 전략은 수직적인 보고체계보다 수평적인 토론에서 더 많이 도출되고, 영역에 구애없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서로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내놓는 작업부터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또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 토론 토대 교수는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와 지역발전

의 동력으로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기술적 인프라를 잘 갖추고,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성숙해야 비로소 인재를 마치 자석처럼 끌어 모을 수 있는 창조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에서 창조도시를 도시발전을 슬로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산업에 국한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발전의 기본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를 모두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한 도시들도 있다. 광주시장 당선자의 공약 내용상 '창조의 중심도시'에서 '창조'가 단순히 '문화'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듯하다. 기존의 창조도시 개념을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창조도시가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으로 창의적 시민학습·수평적 조직체계·전문영역 간 자유로운 교류·창의적 인재 육성 및 유입 등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 체제를 상당부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다.

앞으로 행정기관·학계·경제계·시민이 진지하게 서로 다가가 협력하면서 어디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창조의 중심도시 광주'의 밑그림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광주시에서도 조만간에 세계적인 석학인 찰스 랜드리교수와 리처드 플로리다교수를 초빙해 '창조도시 광주의 발전전략에 대한 명쾌한 해안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해 본다.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중고칼럼

정세완

초여름의 싱그러움 속에서 6·2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지방 선거는 많은 이슈들이 천안함 사건에 묻히는 듯했지만 민심은 정권에 대한 책임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치인이 당리당략과 당선에만 얽매어 있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의 정치현실이 우리 국민들의 민도이고 나 자신의 문제임을 실감한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연기

이론이다. 화합(和合)과 상생(相生)을 위해서는 먼저 다름이 있어야 한다. 합(合)이 전에 다름이 있어야 한다. 서로(相)가 있어야 삶(生)이 가능한 것이다. 다름이 없이 같음(同)뿐이라면 굳이 화(和)와 합(合)을 말할 필요가 없으며 다른 존재가 없는 단독자로서의 삶은 상상 속에 서나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화합과 상생의 기본원리에는 개인이 맺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조직과 조직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리고 존재와 존재 간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관계 일반의 것이다. 보수나 진보나 좌든 우든 먼저 상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진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是非(옳고, 그름)를 판단하기 전에利害(이로움과 해로움)로서 시비를 판단한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다.

원불교를 창건하신 소태산 대종사는 대중정교 율호를 28장에서 "眞人은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聖人은 마음이 상극(相戾)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인은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샅틈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온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고 하셨다.

추모의 달 6월에 내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위해 화합과 상생을 생각해 본다.

(원불교 광주·전남 교구 사무국장)

기고

이정서

지난 1988년 이후 9명의 유능한 시간강사가 교수임용 비리와 불합리한 강사제도,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들은 유사에서 한결같이 "노에 같은 강사의 신분과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와 대학들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모씨가 자살한 사건을 접하며 전국 각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큰 슬픔에 잠겼다. 그가 남긴 유서의 내용은 그동안 수

급기야 사회문제로 번져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기 때문 이번 사건은 서씨가 자살직전 작성한 유서가 공개되면서 그동안 쌓여왔던 시간강사들의 불만이 북돋워져 터져나오고 있다.

그 동안 무성했던 대학 교수 채용에 역대의 문이 거대되고 자신도 사립대학 두 곳으로부터 교수 임용 대가로 각각 6천만원과 1억원씩을 요구받았다는 유서 내용은 더욱 시간강사들을 분노케 한다. 또 서씨가 남긴 유서의 내용 중 논문 대필 부분은 충격적이지까지 하다. 그

십 년 동안 뒤돌아 해오던 대학의 임용 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더욱 더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

우리나라 시간강사는 모두 7만20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시간당 보통 3만5000원에서 많게는 6만4000원의 강의를 받고 있고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강의의 55%를 담당하고 있다.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도 시간당 강료료는 평균 3만5000원 정도로 전임교수 임급의 10~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기본적 사회보장제도인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대학 전임교수들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잡다한 굵은일을 묵묵히 처리하며 수모를 겪고 있다. 또 일일직에 불과한 밥줄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고용불안정의 율타리속에 미래를 걱정하며 희미한 등불처럼 살아오고 있다.

(고려평생교육원장)

시간강사 처우 이대로 들건가

동안 쉬쉬하고 덮어둔 한국 대학사회의 병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서씨는 유서에서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박사 논문 1편, 한국학술진흥재단 논문 1편, 석사 논문 4편, 학술진흥재단 발표 논문 4편을 썼다"면서 "같이 쓴 논문 54편 모두 제가 쓴 논문으로, 교수님은 이름만 들어갔다"고 밝혔다.

논문대필을 강요한 부패하고 몰염치한 비학문적 일부 교수들의 뼈아픈 반성과 자성을 촉구한다. 서씨처럼 극단적인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대학의 잘못된 강사임용제도와 연구문화, 그리고 대학강사 교원회 회복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에 정부와 대학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고려평생교육원장)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해야

얼마 전 TV에서 한 교통관련 연구기관과 실험을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3살 어린이 모형으로 차량 충돌 실험을 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고 놀라웠다. 안전띠를 안 맨 어린이가 조수석 뒷부분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친 뒤 뒷좌석 쪽으로 다시 날아갔다. 머리와 목을 크게 다쳐 안전띠를 썼을 때보다 사망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아이를 안고 탔을 경우엔 아이가

역시 조수석 뒷부분에 그대로 머리를 박으면서 그 충격에 온전히 다 받아 사망하고, 어른은 중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또한, 어른의 경우 뒷자리에서 안전띠를 안 매면 사망확률이 9배나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아이에 비해 키와 몸무게가 더 많이 나기 앞좌석까지 튕겨나가기 때문이다. 앞으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지 않을까. ▲송희경·광주시 북구 대령동

시설

무소속 약진이 보여준 '변화와 견제'의 바람

6·2 지방선거에서 특정정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와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민주당의 아성인 이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광주·전남 27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광주 1곳, 전남 7곳에서 당선돼 민주당 일당 독식 구조를 타파한 것이다.

또한 기초의원 30% 이상이 무소속과 민노당 등 비민주당 후보들로 채워졌고, 광역의회에는 전체 74명 중 8명이 비민주당계로, 이 중에 한나라당 후보가 4년 만에 재진입에 성공해 의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된 셈이다.

특히 시장·도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의 두자리 숫자 득표율과 광주 시장에 출마해 2위에 오른 국합당의 정찬용 후보의 선전은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과 비교,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으로 한나라당과 국합당을 선택했다는 유권자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민주당 공천 =

양 당선자는 또 이념대립 구도로 겪고 있는 소모적인 내용과 일제교사, 교원평가제 등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원만하게 해소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가 주장하는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덕목이지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지방교육 현실에 깊이 파고드는 한편, 전국적인 울림을 낳는 교육의제를 발굴하는 것도 이들의 숙제다. 교육현장에 검증이 안 된 이론이나 방식을 실험하려 하지 말고 현 정부와의 대안없는 대립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경정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균형 있는 판단력과 내실 있는 추진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양 당선자는 당장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부패와 기득권 안주부터 적결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현상유지보다는 변화를 선택한 것은 개혁 없이는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보 교육감, 지역민의 뜻 엄중히 받아들여야

광주·전남지역 교육이 대변혁의 기류에 휩싸일 전망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앞으로 4년 간 지역교육을 이끌어갈 수장(首長)에 진보성향의 후보들이 동시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 출신의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자, 대학총장을 지낸 장만채 전남교육감 당선자는 대표적인 진보성향의 교육자로 알려져 있다. 지역 교육계에 거센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예상되는 이유다.

두 당선자는 지역교육의 책임을 맡긴 지역민의 뜻과 역사적 책무를 엄중히 헤아려야 한다. 사상 첫 진보 성향의 교육감 탄생에 대해 학부모나 교육단체, 교육당국 등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양 당선자는 당장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부패와 기득권 안주부터 적결해야 한다. 지역민들이 현상유지보다는 변화를 선택한 것은 개혁 없이는 지역교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無等鼓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축구를 '고대 사춘기 의식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주장한다. 젊은이들이 무리지어 투쟁하는 스포츠에서 스스로 능력을 증명해 남승으로서의 토대를 닦는다는 것이다. 독일 예술사학자 호르스트 브레데캄프는 "인생의 어느 영역에서도 축구는 또 어떠한가. 축구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오직 발과 머리 구처럼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간단한 도구로 그렇게 기초적이면서도 극히 다채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독일의 축구 전문가가 크리스토프 바우젠 바인은 '축구를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축구를 '민중의 예술'로 정의한다. 관중은 단지 예술가들(선수들)의 어깨 너머로 넘겨 보는 것이 아니라 응원을 통해 함께 드라마를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는 "자 유분방한 축제, 콘서트의 열광, 종교적 경건함, 이 모든 것이 전생태이면서 연회장이고, 오페라하우스이고, 상당인 경기장에 모여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축구는 단순히 스포츠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우선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마력이 있다. TV를 보면, 경기장에 가던 동일화를 체케 한다. 개인이 아닌 모두가 승리와 패배라는 통일된 경험을 만끽한다. 거기에서 개인은 없다. 오직 우리가 있을 뿐. 경기는 또 어떠한가. 축구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다. 오직 발과 머리 구처럼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간단한 도구로 그렇게 기초적이면서도 극히 다채로운 사건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또 축구는 종교와 인종과 대륙과 이념을 망라한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래서 월드컵 결승전은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6억 명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본다.

월드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머지않아 지구촌 어떤 사람들은 기쁨에 환호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의 5000만 국민이 '붉은 악마'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다. 필자 또한 그 변신에 동참하면서 잠시 축구의 의미를 음미해 본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업1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412 (F A X 222-6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 화 회 2 부 2200-661 어 려 문 2 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 2200-551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 2200-551 (F A X 227-9500) 02-773-9331 (F A X 02-773-9335)
---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